

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1. 12. 22.(수) / 총 5매(본문5)	
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성호철, 사무관 강나루·공용식, 주무관 남혜숙·윤재구 ·☎ (044) 201-4504, 4507, 4509	
보 도 일 시		2021년 12월 2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함께하는 ‘맞춤형 주거복지 실현’ ...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

- 23일 「2021 제17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」 통해 소통·성과 공유 -

“대통령 표창”... 시흥시 ‘시흥형 주거복지 사업’,
윤장기 센터장(주택관리공단) ‘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맞춤 주거복지’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지자체, 공공기관, 금융기관, NGO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계자가 모여 지난 1년간의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『2021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』를 개최한다.
 -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2월 23일(목) 오후 3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‘온통’ 및 LH 유튜브 채널 ‘LH 한국토지주택공사’를 통해 중계된다.
 - * 코로나-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, 국토교통부 채널 ‘온통’ (www.youtube.com/user/korealand) 또는 www.youtube.com/user/lh)을 통해 녹화영상 송출 및 실시간 중계
-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한 『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』에서는 ‘중앙과 지자체,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’을 주제로 주거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,
 - 주거복지 향상 노력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여건 향상, 경제적 부담 완화 등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‘정부-지자체’, ‘공공-민간’ 간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된다.

□ 이번 한마당에서는 「제1회 주거복지대상」 우수 지자체 등의 사례 발표와 대통령,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시상을 진행한다.

- 정부·지자체 등의 주거복지 향상 노력이,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 수요에 밀착 대응되기 위해서는 지자체·공공·민간 등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「주거복지대상」을 도입하여 ‘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’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.

□ 대통령 표창, 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 주거복지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.

-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는 경기 시흥시는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(13)하여 집수리 지원사업, 주거비 지원 등 지역 맞춤형 ‘시흥형 주거복지 사업’을 수립하였다.
 - 특히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(중위소득 45%이하)보다 대상자를 확대(중위소득 60% 이하)한 ‘시흥형 주거급여’, 아동 빈곤 가구에 초점을 맞춘 ‘시흥형 아동주거비’ 지원 등이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.

[아이 셋과 함께 월세로 거주 중인 A씨] 시흥시에서 제공하는 ‘시흥형 아동주거비’를 통해 제가 받고있는 주거급여뿐 아니라 우리 아이 세명에 대한 주거비를 추가로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 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
- 윤장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장(대통령 표창)은 '19년부터 청주 산남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면서,
 - 노인·중장년층 입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*하고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주거복지서비스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였으며,

* 반려식물 키우기, 무료빨래방 운영, 저장강박세대의 청소·살균서비스 제공 등

- 지자체·대학 등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실태조사·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입주민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발굴(노인세대 낙상 방지 무선 전등 스위치 설치사업, 밀반찬 지원서비스 등)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.

< '청주 산남2 찾아가는 마이홈센터' 입주민 인터뷰 결과 >

<p>①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용직으로 일하며 홀로 거주하던 B씨(男)</p> <p>☞ 충북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단지 내 숙골 빨래터(무료빨래방)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</p>	<p>“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월급쟁이가 된 것에 대해 너무 기분이 좋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하루하루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.”</p>
<p>② 몸이 불편하지만 나이 제한으로 무료급식(복지관)에서 제외된 C씨(女)</p> <p>☞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수요를 발굴하였고, 지역 반찬가게 후원으로 매주 밀반찬 지원 서비스 제공</p>	<p>“어느 날 갑자기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,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시며 몸이 불편한 저에게 밀반찬을 주고 있습니다. 살면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너무 감사했습니다”</p>

- 국무총리 표창 기관인 서울 마포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거복지 기금인 '주거안정기금'을 조성(19)하여 임시거소 운영, 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비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브랜드화한 '마포하우징'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[긴급 주거위기가구 D씨] 가정폭력으로 지금 살고있는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, 저를 긴급 주거위기 가구로 인정해주고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임시거소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.

- 경기 고양시(총리 표창)는 최초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거복지 센터를 설치하였고,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민·관 거버넌스를 구축(사회복지협의회, 농협, 기업경제인연합회 등)하여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사업(G 하우스) 등 주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.

- 또한 노후 주택이 증가하는 1기 신도시(일산) 및 인근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공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, 햇살하우스 사업 등을 통한 창호·보일러 등 교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.

[집이 경매로 넘어가 갈 곳이 없었던 E씨]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과금을 연이어 체납한 데 이어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다음달까지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 때 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와 상담하게 되었고,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긴급주거지원 등 시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제도를 즉시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.

○ **충남 천안시**(총리 표창)는 민·관 협력(해비타트 등)을 통해 **토지매입비·건축비 등을 시비로 지원**하여 저소득·무주택 160세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집짓기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.

- 아울러, 타지역 대비 **청년 인구 비율(32.8%)이 높은 점**을 감안하여 **청년세어하우스**를 운영하고, 천안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**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**에 기여하고 있다.

[무주택자 F씨] 우연히 시에서 제공하는 ‘사랑의 집짓기’ 입주자 모집공고를 접하게 되어 신청하였고, 집에 직접 방문한 가정선정위원과 면담 후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환부담(무이자 분할상환)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. 내집마련의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.

○ **광주 남구**(총리 표창)는 **민간 복지자원 연계**(네이버 해피빈 기부, 남구 자원봉사단 등) 등 **지역 협력체계를 활용**하여 **주거환경 개선사업**을 추진하고, 콜센터·현장방문·카카오톡 등 **온·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채널**을 구축하여 **발굴·접수된 사례관리**를 8백건(‘19.11~’21.6) 이상 처리하는 등 **사각지대 해소**를 위해 노력하였다.

[광주 남구 장애인복지과 G씨]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나가는 발달장애 청년의 꿈을 응원할 수 있도록 네이버 해피빈과의 협업을 통해 “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요” 모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많은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.

○ 이외에도 **아동 주거권 보장**을 위한 주거비 지원 및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‘**초록우산 어린이재단**’의 다양한 기관·개인·단체 등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높은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의 **주거복지 우수사례**가 공유·확산될 수 있도록 영상, 백서 제작 및 **발간**을 추진할 계획이며,

○ **내년부터**는 지자체별 규모·여건을 고려하여 **주거복지 성과 평가 체계**를 세분화하고, 정부 포상 등 **인센티브도 확대**하는 등 금년 도입된 「**주거복지대상**」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“그간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요 기관·단체 등이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서민 주거안정 도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”면서,

○ “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건설·공급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, 사후 관리까지 주거복지 정책이 단절되지 않고, 모두가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며,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제17회 2021 주거복지인 한마당은 온라인 개최로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, 더욱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‘마이홈 앱·포털(<http://m.myhome.go.kr>)’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
○ 한편, 국토교통부는 ‘마이홈 앱·포털’을 개편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,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강나루 사무관(☎ 044-201-3360)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